

문화 감수성

지난 화요일에 윌리엄 목사님이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7월에 있을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교실 장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성경학교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용을 그리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양 문화를 잘 아시는 어느 교인께서, 한국 사람들은 용을 악의 화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용 그림을 교실 벽에 붙이는 것이 그토록 문제 되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 왔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심을 보여 준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계획대로 진행해도 될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과거 토속 신앙에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 교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 때문에 그분들이 하려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감이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한에서 퍼져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가 박쥐인데, 중국인들이 박쥐를 먹어서 그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었다면서, 그들을 미개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박쥐가 건강에 좋다는 소문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박쥐 씨가 마를 정도였다는 신문 기사를 제시하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멈추라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 얼마나 야만인 취급을 당했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두고 미개하니, 야만이니 비난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문화가 다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 문화 중에도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국 문화에도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미국 문화에도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인도적이고 인간의 야만성을 자극하는 문화는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 어느 나라의 문화는 더 우월하고 어느 나라의 문화는 더 낫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껌질 벗긴 생쥐를 날로 먹는 모습과 산낙지를 통째로 씹어 먹는 모습 중에 어느 편이 더 혐오스러운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생소한 어떤 문화를 보고 낯설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으로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근거 없는 비약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문화 감수성'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는 사회에서 내 자신의 문화에 대해 당당해야 하지만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존중심을 가지고 지켜 보아야 합니다. 윌리엄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나 나의 언행이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해 줄 때, 그들도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2월 2일 주일 설교 '더 나은 실천'(9) "하나님 나라는 사이에 있다" God's Kingdom Is in Between

- 찬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35장(통50)
- 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마태복음 7장 1-6절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 말씀묵상** 한 사람이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발표합니다. (10분)
- 말씀나눔**
 - 질문 전체를 읽어 주고 자신에게 와 닿는 질문에 답하게 하십시오.
 - 전체 나눔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다른 사람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했다가 낭패를 경험한 일이 있다면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조언이나 충고로 인해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 3. 예수님이 말씀하신 '관계의 예술'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 4. 당신의 '사이들'은 어떻습니까?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사이들을 만들기 위해 당신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기도**
 - 1. 당신의 '사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2. '관계의 예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 중보기도**
 - 1.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으로 중보하십시오.
 - 2.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의 소식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 찬송/헌금**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통369)
- 주기도문** 광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난 설교문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묵상 안내
www.koinonia2020.com



수 요 예 배

오후 8시 / 본당
인도: 김영봉 목사



찬양과 기도 김영봉 목사

강해 예수의 비유 김영봉 목사

찬양과 기도 다같이

사역자 연락처

직책	이름	전화	이메일
담임목사	김영봉	703-850-9447	bong320@gmail.com
영어권 담당목사	Danny Chung 대니정	213-210-4057	dannychung50@gmail.com
어린이 담당 디렉터	Alex Kim 알렉스김	571-201-0701	munkyong@hotmail.com
English Worship Pastor	HK Kim 김형균	703-346-0001	hkkim122@gmail.com
사무행정	윤문경	703-944-7827	dalpool@hotmail.com

- '하루 한 말씀' 이번 주 진도는 **시편 116편-119편 120절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진도를 따라 '하루 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적훈련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www.koinonia2020.com에 접속 하시면 본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과 묵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주일 '설날 축제'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속회사역부원들과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 드립니다.
- 오늘 예배 후 4시부터 목사관에서 새교우반 마지막 시간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후에는 환영 만찬이 있을 것입니다. 새교우 환영 예식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 오늘 예배후 본당에서 여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여성교인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금요일(7일)부터 다음 화요일(11일)까지 꿈마실 방문팀(10명)을 맞아 주시고 집을 열어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숙박가정: 나영자/나구용, 양승엽/박수현, 오영석/오은미, 장돈식/기수양 정대인/신미영 (기타 문의 사항: 조성연 교우)
- 다음 주일 예배 중에는 '사랑의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헌금'은 교우 중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1회에 한하여 최대 2천 달러까지 돕는 일에 사용됩니다. 사랑의 헌금은 담임목사와 임원회장과 재정부장의 협의로 결정하여 집행됩니다. 2019년에도 세 가정에 사랑의 헌금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기대합니다.
- 6월 18일(목) 버지니아 연회 추모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성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1시에 버스로 출발하여 로녹(Roanoke)에서 7시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옵니다. 교회 주차장 도착은 금요일 오전 1시쯤으로 예상됩니다. 이 일에 교우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2월 말까지 최인달 지휘자 혹은 김광순 성가대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운서림에서는 '읽고 싶은 책' 추천을 2월 한 달 동안 받습니다. 교우님들의 추천 목록에 따라 2020년 상반기 도서를 구매하여 갓출 예정입니다. 라운서림 지킴이 손지현/이환섭 교우께 직접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우 모두가 '삼중 사귄'(Triple Communion)에 있어서 깊어지도록
- 센터빌연합감리교회, 와싱턴한인교회 그리고 체스터브룩연합감리교회를 위해
-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멕시코(김승석 선교사), 남아공(장용석/강준이 선교사), 아리조나 호피 인디언 보호구역(임태일/박대준 선교사)
- 육신의 질병 혹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 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Lewis 감독님을 위해
- 한국과 미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 2020년 5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위하여
- <신앙의 길 101>을 위해

주일예배

- **한어 성인예배(KS)**
오후 2시/ 본당
중보기도: 오후 1시 20분/208호
- **Youth & ES**
오후 2시/ ROC
- **어린이 (Children)**
오후 2시 / 213-215호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8시 / 본당

새벽기도회
토요일 오전 6시/ 본당
다른 요일은 개인기도로 대신

2월 하루 한 말씀 진도표

3일(월)	4일(화)	5일(수)	6일(목)	7일(금)	8일(토)
시편 116편	시편 117편	시편 118편	시편 119:1-40	시편 119:41-80	시편 119:81-120

www.koinonia2020.com에서 매일 묵상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친교

날짜	담당속회
오늘	새부대속(김혜진)
2월 9일	진실속(문영애)
2월 16일	참사랑속(정명림)
2월 23일	동행속(정도균)

제자반

<신앙의 길 101>
담임목사의 저서 <나는 왜 믿는가>를 읽어가면서, **6주간**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새로운 제자반/ 217호

- 1차: 1월, 2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2차: 3월 22일(주일) 오전 9시 시작
- 3차: 6월 12일(금)-13일(토) 하루 수양회
- 4차: 7월 10일(금) 오후 8시 시작
- 5차: 9월 1일(토) 오전 8시 시작
- 6차: 12월 11일(금)-12일(토) 하루 수양회

회중기도와 성경봉독

날짜	회중기도	성경봉독
다음주	장지은	원태민
2월 16일	이준석	정명림
2월 23일	오은미	임경묵
3월 1일	오영석	김수지

안내와 헌금 위원

2월 - 김희수/김순자 3월 - 이준석/장지은

***주일 설교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에
WDCT1310 기쁜소리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1월 26일)

한어성인예배(KS)	183	주일학교	\$15
영어예배(ES)	22	주일헌금	\$55
청소년예배(Youth)	30	주정/월정	\$4,655
교회학교(Sunday School)	19	십일조	\$3,500.21
주일예배 출석 합계	254	선교헌금	\$170
수요일예배(1/29)	33	감사헌금	\$220
		New Year Thanks	\$50
주간예배 출석 합계:	287	합계:	\$8,665.21

2020년 2월 2일 | 성탄후 여섯째 주일

본당 / 2:00pm

사회: 김영봉 목사 지휘: 최인달

피아노: 이애령 오르간: 김성은

전주 Prelude		오르간
촛불 점화 Lighting the Candles		말은이
● 경배 찬송 Hymn of Invocation	"하늘에 계신" 635장 Our Farther, Which Art in Heaven	다같이
●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다같이
● 개회찬송 Hymn of Praise	"큰 영화로신 주" 35장(통50) Great King of Glory	다같이
● 신앙 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다같이
회중 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최연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7장 1-6절 Matthew 7:1-6	배영주
찬양 Anthem	만민아 찬양하라	성가대
설교 Sermon	"하나님 나라는 사이에 있다" God's Kingdom Is in Between	김영봉 목사
● 송영과 봉헌 Doxology & Offering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장(통71) All to Jesus I Surrender	다같이
목회 기도 Pastoral Prayer		김영봉 목사
성찬식 Holy Communion		다같이
● 결단의 찬송 Hymn of Commitment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통369) Love Your God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김영봉 목사
인사와 광고 Greeting & Announcements		사회자

"Sanctuary"

- 표에서는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as you are able.
헌금은 예배당 안에 있는 헌금접시에 드리십시오.
Please place your offering into the trays in the chapel.